

## 1. 인문지리와 유교문화경관

### 1) 마을입지와 지리적 환경

의성의 아주신씨 일가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 있는 가문으로 수백 년간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다.

아주신씨(鵝州申氏)의 본관인 아주는 본래 고려말에 거제속현(巨濟屬縣)이었던 아주현을 말하는데, 아주신씨는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 영미(英美)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윤유(允濡) 때부터이다. 윤유 → 우 → 광귀 → 희신(希信) → 건(乾)까지는 상주 관할의 단밀(丹密)에 세거하였다. 9세손 시생(始生) 때에 안동군 풍북면(豊北面) 정사동(鼎寺洞)으로 이주하였다가 10세손 개보(介甫) 때 비로소 의성군 봉양면 상리동(上里洞)으로 옮겼고, 14세손인 지제(之梯) 때에 현재의 봉양면 귀미리에 세거하게 되었다.

신지제는 자가 순보(順甫), 호가 오봉(梧峰) · 오재(梧齋)로 증조는 증창례원판결사 한(翰)이고, 할아버지는 증공조참판 응규(應奎)이며, 아버지는 증좌승지 몽득(夢得), 어머니는 월성박씨 민수(敏樹)의 딸이고, 부인은 함안조씨 지(址)의 딸이다. 일찍이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와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589년 증광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중앙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 중앙의 여러 영남 출신 관료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의성군 봉양면은 의성군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의성읍, 서쪽으로 비안면, 남쪽으로 금성면, 북쪽으로 안평면에 접한다. 면의 북부는 저산지를 이루고, 북동쪽에서 흘러오는 남대천과 남동쪽에서 흘러오는 쌍계천이 면의 중앙부에서 합류하여 봉천이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그 중에서도 아주신씨의 집성촌인 귀미리는 봉양면 면소재지 도리원(桃李院)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마을의 앞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대천이 흐르고 있으며,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기슭 아래에 자리잡고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있다. 마을 인근에는 대추 · 감 · 포도 등 과일나무가 많으며, 마을 안의 커다란 연못 또한 풍요함을 더해주고 있다.

신지제가 여러 곳에 영주(永住)할 터를 물색하던 중 산수가 수려한 이곳을 택했는데, 당시의 마을 명칭은 의성현(義城縣) 금뢰면(金磊面) 귀호(龜湖) · 귀장(龜莊) 등으로 불렸으나, 마을의 뒷산이 거북이의 등과 꼬리 모양을 한 채 남대천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을 하여 귀미로 명칭이 바뀌었다. 입향 당시에 기술된 동지(洞誌)인 『귀장지(龜莊誌)』에 의하면 신지제가 이곳의 들과 푸른장 · 매화 · 기러기 ·



< 오봉종택 전경 >

갈매기 등을 찬미한 흔적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의성군 봉양면 귀미동이 되었다가, 1988년 5월 1일 동의 명칭을 리로 변경하여 오늘날의 귀미리에 이르렀다.

귀미에 세거하고 있는 아주신씨 봉주공파(鳳州公派)는 5세손 우(祐)의 차자 광귀(光貴)를 중시조로 한다. 봉주공파라 부르게 된 연유는 광귀가 황해도 지봉주사(知鳳州事)를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봉주공파는 또한 귀파(龜派)라 불리는데, 이는 귀미리를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재 귀미리에는 낙선당(樂善堂)과 신지제신도비(申之悌神道碑) · 금산서원(錦山書院) · 죽애정(竹厓亭) · 감애정(鑑厓亭) · 삼지당(三知堂) · 창암정(蒼巖亭) 등 아주신씨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 2) 유교문화경관

(1) 낙선당 · 오봉사당

아주신씨 오봉종택 안쪽의 낙선당은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의 아들 고송 신흥망이 서원으로 썼던 건물이 있다. 낙선당은 1691년에 건축하여 1740년에 화재를 입고, 1752년에 재건했으나 거의 무너지게 된 것을 1971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낙선당을 비롯한 오봉종택의 건물들을 북한군들이 병원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 낙선당 >

낙선당의 뒤쪽에는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를 불천위로 모시는 오봉사당이 있다. 사당의 안쪽에는 신지제의 불천위 위패를 비롯한 4대봉사를 한 위패들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신지제의 유물인 갓과 칼을 보존하고 있다.

(2) 금산서원 · 장대서원

도리원에서 봉양면 귀미리로 가는 길 한쪽에 금연정사(錦淵精舍)는 본래 회병(晦屏) 신체인(申體仁)이 세속의 명예와 탐욕을 멀리하고 1776년(영조 52)에 귀미에서 건너보이는 금산 언덕에 금연정사를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 학덕을 쌓던 곳이다. 1912년 금연정사가 무너지고 현판만이 남았는데, 신종기(申宗基)가 정사 중건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에 후손과 유림의 공의(公議)로 1977년 강당을 짓고, 1981년에 서원으로 승격하여 금산서원이라 불렀으며, 신지제(申之悌), 신체인(申體仁)을 제향하였다.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장대서원은 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진 봉양면 장대리에 있는 서원이다. 1610년(광해 2)에 신지제가 후진을 기르기 위해 강당을 건립한데서 비롯되었다. 그의 사후 그 자리에 그를 경모하기 위한 경현사(景賢祠)를 세웠고, 이어 장대서원(藏待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서원명은 당시 의성현령이었던 여헌 장현광이 ‘장기



< 금산서원 >

어신(藏器於身) 대시이훈(待時里勳)’이란 현판을 써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702년에 사(祠)를 서원으로 승격하여 유지해 오다가 1868년 8월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이후 신원록(申元祿)의 후손인 신달섭(申達燮)과 신지제의 후손인 신태근(申泰根) 등이 공의를 모아 1987년에 경현사를 복원하였고, 1996년에는 신원록의 후손 신진돌(申鎭

玟)이 당회(堂會)의 뜻을 모아 강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지제(申之悌)를 비롯한 김광수(金光粹) · 이민성(李民成) · 신원록(申元祿)이 서원에 배향되었다.



< 장대서원 >

서원에는 동재(東齋) · 서재(西齋) · 신문(神門) · 명륜당(明倫堂) · 전사청(奠祠廳) 등의 건물이 있다.

## 2. 종가의 인물과 문헌자료

### 1) 종가의 인물

의성에 세거하는 아주신씨(鵝洲申氏)는 고려말 거제속현(巨濟屬縣)이었던 아주현(鵝州縣)을 본관으로 한다. 영조 때 편찬된 『문헌비고(文獻備考)』, 1924년에 간행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및 아주신씨의 가첩(家牒)에는 고려 때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 영미(英美)가 시조로 기록되어 있다.

아주신씨가 의성에 정착하게 된 것은 4세 율유(允濡)가 상주 만경산(萬景山), 즉 지금의 의성군 단밀면으로 이주하면서 비롯되었다. 그의 손자 광부(光富)와 광귀(光貴)의 후손들은 분파하여 각각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 · 읍파(邑派)와 봉주공파(鳳州公派) · 귀파(龜派)로 불린다. 봉주공파는 14세 지제(之悌)가 의성군 봉양면 귀미리에 이주한 이후 500여 년 이상 세거지를 형성해 왔다.

신지제를 비롯한 그 후손들의 학통은 퇴계학맥 내의 서애(西厓, 류성룡) · 학봉(鶴峰, 김성일) · 여헌(旅軒, 장현광)에 연유한다. 그들은 의성김씨 · 풍산류씨 · 안동김씨 · 안동권씨 · 영양남씨 · 한양조씨 · 광산김씨 등 지역의 명망있는 성씨들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향촌내에서 사회적 · 신분적 기반을 굳건히 하였다.

#### (1) 불천위 신지제(申之悌; 1562~1624)

자는 순보(順甫)이고, 호는 오봉(梧峰) · 오재(梧齋)이다. 조부는 증공조 참판 응규(應奎)이고, 아버지는 증좌승지 몽득(夢得)이며, 어머니는 월성 박씨 민수(敏樹)의 딸이다. 부인은 함안조씨 지(址)의 딸이다. 신지제는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그는 어릴 때부터 신의가 두터웠으며 심지가 굳었다. 그가 김언기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 문도 70여 명이 산에서 땀감을 구하여 서당에 불을 지폈다. 하루는 권태일(權泰一)·박의장(朴毅長)과 함께 산에 땀감을 구하러 갔는데, 마침 한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고 있었다. 신지제는 벗들과 그 노인에게 땀감을 구걸하였는데, 노인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다가 욕을 하였다. 함께 간 친구가 화가 나서 노인을 밀쳤는데, 노인이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노인의 아들이 관가에 고소하여 밀친 친구가 관에 끌려갔다. 신지제는 다른 벗에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갔으니 한 사람에게 죄를 씌울 수 없다.”라고 하고, 관가에 따라 들어가서 서로 자신이 밀쳤다고 주장하였다.

수령이 이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노인의 자식에게 “이 세 명은 훗날 재상감이다. 네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한번 용서하여라.”고 하였고, 이들에게는 노인의 장례를 함께 치를 것을 명하였다.

신지제는 17살에 절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하루는 아름다운 시골 여성이 절에 들락거리며, 깊은 밤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신지제는 엄숙한 얼굴로 “당신은 밀도 끝도 없이 이곳에 와서는 밤이 깊어도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나에게 불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골 여성으로 음흉한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서생을 더럽히려고 하니, 어찌 그 죄를 벗어 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훈계하여 그 여성을 돌려보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신지제는 평소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찾아온 까닭을 묻자, 남자가 “공(公)이 성대한 덕이 있어 시골 여성을 바른 도(道)로 훈계한 것을 들었기에 와서 인사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여성이 신지제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한 것이었다.

신지제는 1589년(선조 22) 4월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고, 5월 사섬시 직장에 제수되었으며, 1591년 예안현감이 되었다. 그는 퇴계 이황의 문하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여, 스스로 예안현감을 자청하였다. 예안현감으로 있을 때 항상 도산(陶山)을 왕래하면서 많은 사우(士友)들과

함께 학문의 비결을 강구(講究)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안 지역 유생들에게 거의(舉義)를 촉구하는 격문을 돌렸으며, 예안 지역의 의병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였다. 1594년 9월 3일 관찰사 홍이상(洪履祥)이 “고을에 거점을 삼을 만한 험준한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대가 가서 형세를 보고 오라.”는 명을 내리자, 신지제는 청량산(淸凉山)을 둘러본 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1601년(선조 34)에는 정언·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지평·성균관전적 등을 거쳐 1604년에는 세자시강원문학·성균관직강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창원부사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던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 등을 토포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신지제는 자신의 감정을 시(詩)로 많이 표현하였다. 그의 문집인 『오봉집(梧峰集)』에는 481제의 시가 보인다. 이 가운데 예안현감 시기부터 창원부사가 되기 전에 지은 시가 36제이고, 회산잡영(檜山雜詠)에는 모두 253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부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을 모은 것이다. 외직으로 돌아다니는 틈틈이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구당만록(龜堂漫錄)」에는 192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618년 창원부사에서 체직되어 향촌으로 돌아와 6년 동안 한거할 때 지은 시이다. 「원북촌술사(院北村述事)」는 함안조씨의 세거지인 원북(院北)에 대한 내력을 읊은 오언고시(五言古詩)이다. 여기에는 그의 서정적인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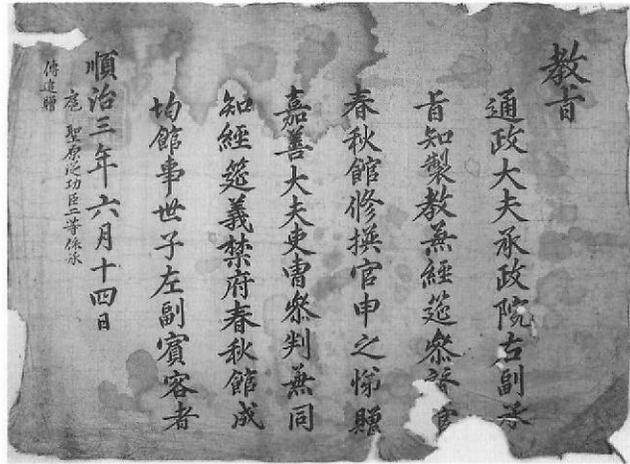
그 밖에 왜란을 겪고 난 후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을 근심하며 지은 시, 처가에서 종살이를 한 여종이 신지제의 집에 와서 86세로 죽을 때까지 주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제사지낼 사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지은 시도 보인다.

신지제는 관료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헌부차자(憲府筭子)」는 1605년(선조 38) 지평을 역임할 때 어명(御命)으로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풍수에 의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기술한 것인데, 당시 헌장(憲長)인 박승종(朴承宗)이 시재(時宰)를 몰아세웠다 하여 임금에게 올리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신지제는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저서로는 1740년(영조 16) 현손 진구(震龜)가 편집 · 간행한 『오봉집(梧峰集)』이 전하고, 장대서원에 제향되었다.



< 신지제에게 내린 교지,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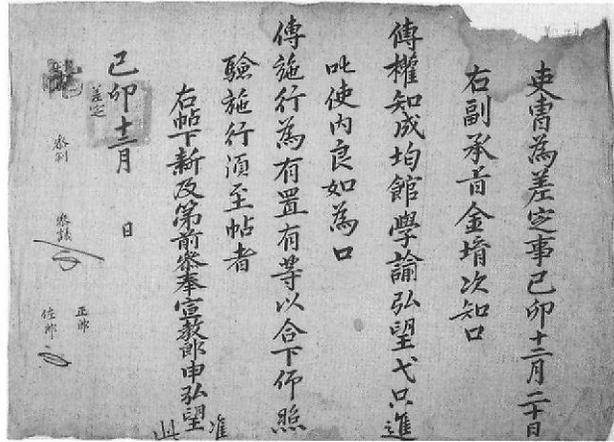
#### (2) 신흥망(申弘望; 1600~1673)

자는 망구(望久)이고, 호는 고송(孤松)이다. 지제(之悌)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함안조씨이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 · 지평 · 정언 · 풍기군수 · 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楨)가 자못 폐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 당하였는데, 이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이를 듣고 신흥망이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풀려났다.

1657년(효종 8) 울산부사로 나갔을 때, 내외 치적이 현저하여 선정비가 세워졌다.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읍재(邑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

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고 부임한 뒤,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이후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고향에 낙선당(樂善堂)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 신흥망의 교지,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

저서로는 1739년(영조 15) 증손 진구(震龜)가 편집 · 간행한 『고송집(孤松集)』이 전한다.

(3) 신체인(申體仁; 1731~1812)

자는 자장(子長)이고, 호는 회병(晦屏)이다. 오봉(梧峯) 신지계(申之悌)의 7세손으로 할아버지는 분귀(賁龜)이고, 아버지는 도만(道萬)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소질이 있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으며, 향시에 응시하여 일등으로 합격하였다. 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 강와(剛窩) 임필대(任必大),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이다. 1781년(정조 5) 이상정이 사망하자 신체인은 도학이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동문들과 함께 학문에 더욱 힘썼다.

1782년(정조 6) 금연정사(錦淵精舍)가 완성되자 왼쪽 방을 주경재(主敬齋), 오른쪽 방을 집의재(集義齋)라 이름짓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성품이 간략하고 거짓이 없었으며 언행에 있어 준엄함이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지냈지만 가난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고, 세속의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끼니도 잇기 어려웠지만 학문에 흔들림 없이 정진하였다.

만년에는 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눈을 감고 정좌하여 존양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 1807년(순조 7) 현감 김상임(金相任)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이 신체인의 경술과 문장이 일세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천거하였고, 1808년에는 방백(方伯) 윤광안(尹光顔)이, 1809년에는 정동관(鄭東觀)이 각각 신체인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신체인은 한유(韓愈)를 특히 좋아했으며, 천문지리·병가·산수·복서·의약 등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지만, 중년 이후로는 오로지 정주학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문집 『회병집(晦屏集)』에 실린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서이다. 거기서 신체인은 “기호 지역의 총명한 인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근래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학에 심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분량이 상당히 방대한데, 신체인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신체인은 최수구(崔數咎)·이종수(李宗洙)·김종덕(金宗德)·류장원(柳長源)·조술도(趙述道) 등과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신체인은 특히 김종덕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의 간행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심경강록간보』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종덕은 『심경(心經)』 관련 주석서 가운데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신체인이 류장원에게 보낸 편지에는 류장원이 저술한 『계집고증(溪集考證)』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계집고증』은 『퇴계집(退溪集)』에 대한 주해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체인이 당대 영남좌도의 거유들과 밀접한 교류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의 학문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신체인의 학문은 주경(主敬)을 기본으로 하고, 정좌(靜坐)를 요법으로 삼았으며, 정제엄숙(整齊嚴肅)과 정의관존침시(正衣冠尊瞻視)의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 일찍이 경(敬)을 논하는 학설과 경을 지키는 공부 방법이 모든 책에 서술되어 있으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한다고 하여 『숭경록(崇敬錄)』을 저술하기도 했다.

호문육군자(湖門六君子)로 금산서원(錦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 저서로는 『회병집(晦屏集)』과 『숭경록(崇敬錄)』 등이 전한다.

2) 종택에 전해오는 문헌자료

오봉종택에 전해오는 문헌자료는 호계가문의 고문서와 더불어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77로 엮은 바 있다. 이로써 오봉종택의 고문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고문서를 검토한 연구 성과도 나왔다. 오봉종택에서는 2003년 종가에 보관해오던 고서 78점과 고문서 85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하였다.

오봉종택의 고서 가운데는 『오봉집(梧峯集)』 · 『고송집(孤松集)』 등의 문집류와 『영남동도회(嶺南同道會)』 · 『장사일록(長沙日錄)』 · 『갑진걸물절왜사소(甲辰乞勿絶倭使疏)』 · 『귀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泐新粧都目完議)』 ·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命卷)』 · 『재사완의(齋舍完議)』 등의 필사류(筆寫類)가 있다. 필사류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되었다. 고서 가운데 몇몇 자료의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오봉집』은 1740년(영조 16) 신지제의 현손 진구(震龜)가 편집 · 간행하였다. 문집 가운데 시(詩)에는 창원부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을 모은 「회산잡영(檜山雜詠)」과 예안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을 적은 「유청량산록(遊淸涼山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유청량산록」은 신지제가 1594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청량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기행문이다. 그때 금난수(琴蘭秀)가 동행하였으며, 치원암 · 안중암과 몇몇 봉우리를 간신히 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넉넉히 유람할 겨를이 없음을 아쉬워하였고, 김수온(金守溫)이 불교에 아부한 시를 보고 유자(儒者)의 죄인이라고 평가했으며, 퇴계 이황의 유향(儒鄉)을 흠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차자(筓子) 가운데 「헌부차자(憲府筓子)」는 사헌부에 재직할 당시 왕에게 올린 것이다. 「교선무공신이광약(教宣武功臣李光岳)」 · 「교호성공신고희(教扈聖功臣高曦)」 · 「교오련(教吳連)」 등은 임진왜란 당시 왕이 이들 공신에게 내린 교서로 임진왜란 연구에 참고자료가 된다. 서(書)의 「여혹인서(與或人書)」는 병마의 폐단이 농가에 극심하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서찰이다.

『고송집』은 1739년(영조 15) 『오봉집』과 마찬가지로 신흥망의 증손 진구(震龜)가 편집·간행하였다. 시(詩)는 영물(詠物)·풍경·학문 등을 주제로 하여 순후하고 고결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산봉한식(檜山逢寒食)」 3수는 16세 때 지은 것으로 시상(詩想)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여헌장선생문(祭旅軒張先生文)」은 장현광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지은 제문으로, 그가 학계와 나라에 이바지한 공적을 높이 칭송하고 동방의 이학(理學)으로 이황의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갑진걸물절왜사소』는 1604년(선조 37) 약 40여 개의 자료들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직소와 책의 서문을 쓴 것,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 여행기 등 여러 분야의 글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에 관련된 기록과 금강산과 소백산을 여행한 글이 주목된다.

『귀미구보신장도목완의』는 귀미구보(龜尾舊湫) 수세(水稅)와 관련된 완의이다. 귀미구보는 신지제가 귀미에 입향하여 살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畓)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보(湫)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전답에 관개할 수 있게 되었고,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가 했다고 한다.

『귀미구보신장도목완의』는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장에는 완의의 목적을 기록하였고, 이어 답주·경작면적·경작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11개의 조약 절목이 실려 있다. 이것은 경술년(庚戌年)에 작성했는데, 신지제가 길부촌(吉夫村)에 저수지를 쌓고 인근의 동네 주민 천여 호(戶)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기유년(己酉年) 봄에 신씨종가(申氏宗家)에서 마지기당 다섯 냥을 거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옛 도목(都目)을 고치고, 그 규모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명단에는 지역·인명·논밭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고, 권말의 조약절목(條約節目)에는 보의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권말의 첨지(籤紙)에는 1862년(철종 13) 전주(田主)인 천동재사(泉洞齋舍)에서 작성한 ‘보중명문(湫中明文)’이 첨부되어 있다.

『제영남동도회제명권』은 1601년(선조 34) 영남 출신으로 관직에 있는 26명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만든 제명록이다. 정곤수(鄭崐壽), 이호민(李好閔), 강신(姜紳), 강사연(姜系延), 윤화(尹嘩), 박응립(朴應立), 신지제(申之梯), 강심(姜沈), 김택룡(金澤龍), 권경호(權景虎), 류중룡(柳仲龍), 전우(全雨), 오극성(吳克成), 이홍발(李弘發), 박광선(朴光先), 권세인(權世仁), 권순(權淳), 권두(權澍), 김헌(金憲), 노도형(盧道亨), 이민성(李民晟), 권제(權濟), 신경익(申景翼), 이민환(李民賓), 조정(趙靖), 조우인(曹友仁), 남복규(南復圭) 등의 관직과 자(字) 및 출신지역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상주 8인, 함창 4인, 군위 3인, 영해와 단성 각각 2인, 의성·성주·예안·거창·초계·금산·고령·안동이 각각 1인이었다. 신지제가 중앙관직을 역임하면서 교류했던 인물들을 알 수 있다.

『장사일록』의 표지에는 ‘고송부군행장(孤松府君行狀)’이란 제목이 있는데, 고송부원군은 인조 때의 문신 신흥망(申弘望)을 일컫는다. 그는 사헌부 지평으로 있으면서 1652년(효종 3) 9월에 패만(悖慢)한 이시매(李時楨)의 처벌을 청한 이온발(李溫發)의 상소에 대하여 이시매가 선현의 일을 왜곡하여 자신을 변명한 사실에 대해 왕에게 고하였다. 이로 인해 신흥망은 당파를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 『장사일록』은 그 사건의 경과와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상소 및 사건이 10월 9일, 11일~30일, 11월 1일~30일, 12월 1일~21일에 걸쳐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기미년(己未年) 7월 후손인 생원 진귀(震龜)가 썼고, 권말에는 신흥망의 손자 신진귀(申震龜)가 찬(撰)한 행장이 실려 있다.

『재사완의』는 1책 분량으로 1717년(숙종 43) 10월 그믐에 작성하였다. 완의절목에는 묘제(墓祭), 삼대제사(三代祭祀) 등을 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도록 하며 그에 소용되는 쌀·곡식·제기·기물 등의 확보와 점검에 관련된 사항, 초상 때의 부조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제사에 불참하는 경우 태형(笞刑)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내용도 보인다. 절목 뒤에는 1758년(영조 34) 12월 신성귀(申聖龜)가 작성한 「추정약조(追定約條)」가 첨부되어 있다. 유사가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다스린다는 조목, 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 외에 이유없이 선대 제사에 빠지면 태벌(笞罰)로 다스린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 기강과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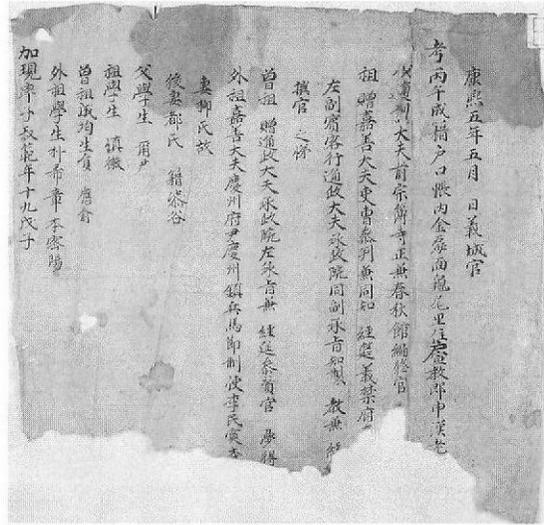
필사 성책 가운데는 『정부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 · 『고위불망기(考位不忘記)』 · 『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祿)』 등이 있다. 『정부인조씨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함안조씨가 상을 당하자 아들 흥망이 기록한 것이다. 내용은 상례 과정, 부의록, 만장 등이다. 『고위불망기』는 신분귀(申賁龜)의 상을 당한 뒤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고, 『임술년종천록』 역시 신분귀가 졸했을 때 상례절차, 제문, 부조 내용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그 외 교지 51점 · 준호구 24점 · 시권 3점 · 녹패 2점 · 예장 2점 · 유지 2점 · 교서 1점이 있다. 교지는 대부분 신지제와 신홍망의 과거 · 관지 · 추증과 관련된 것으로, 그 가운데 홍패는 1639년(인조 17) 신홍망이 문과 병과 급제하여 받은 것이고, 백패 2건은 신홍망이 1627년(인조 5) 진사에 합격한 것과 신도삼(申道三)이 1727년(영조 3) 생원에 합격하여 받은 것이다. 추증교지 2건 가운데 하나는 신지제가 1646년(인조 5) 원종공신에 추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부인 조씨가 정부인으로 추증되면서 받은 것이다.

호적자료인 준호구 24점은 1666년(현종 7) 신홍망대부터 1861년(철종 12) 상기(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 동안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노비도 기재되어 있어 오봉종택의 시기별 경제적 기반의 추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신홍망이 67세가 되던 1666년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는 45구였다. 1699년 그의 손자 숙범(叔範)의 준호구에는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숙범의 손자 정오(鼎五) 대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125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거창 · 김해 · 양산 등 경남 일부와 경기도 수원 등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망 노비의 거주지로 추정된다. 한편 정오의 손자 상기 대에 이르러서는 도망노비가 준호구에서 빠져

서 10여구만 기재되어 있다.

녹패는 신지제의 것으로 1589년(선조 2) 6월과 이듬해 정월 이조에서 사삼시직장이었던 지제에게 제14과 녹(祿)을 내리는 것이다. 교서에는 1617년(광해군 9) 5월 12일에 창원부사였던 신지제에게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 등을 체포한 공으로 통정대부직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1666년 신계노(申溪老)가 작성한 호구내용,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

오봉종택의 문헌자료 가운데 상당량은 불천위 신지제와 그의 아들 신흥망과 관련된 것이고, 준호구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작성되었다. 필사 성책 가운데는 제사를 통한 종중 간의 결속과정과 종가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종가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3. 종가의 제례

#### 1) 제례의 현황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있는 오봉종택에는 신지제를 불천위로 모시는 오봉사당이 있다. 사당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187호로 지정되었다.

이 종가의 제례는 우선 신지제의 불천위 제사가 있다. 제일은 음력 1월 7일인데, 비위의 제일도 같은 날이어서 그날 합설하여 모신다. 기제사는 4대를 봉사하는데, 고조고비위부터 고비위까지 모두 양위를 모시고 있어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서 총 8회이다. 차사는 정월의 설날과 8월의 추석에 모시고 있으며, 10월에 묘사를 지낸다.

아래에서는 종손 신영균(申泳均; 신지제의 15대손)과 종손의 숙부인 신병용(申炳用; 69세)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참고하여 오봉종택의 불천위 제사 과정을 기술한다.

#### 2) 불천위 제례의 과정과 절차

신지제의 불천위 제일을 음력 1월 7일이다. 비위 함안조씨의 기일도 같은 날이어서 합설하여 지내기 때문에 불천위 제사는 1년에 한 차례로 그친다. 불천위 제사에는 홀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홀기에 따라 제사를 모시고 있다.

##### (1) 제사 준비

신지제의 불천위 제사는 문중에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종택에서 제수와 소비되는 물품을 모두 준비하여 진행한다. 종손의 고조대부터 가산이 기울어 현재 넉넉하지는 않지만, 종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찬조하여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오봉종택에는 현재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종손이 주말에 한 두 번 직장생활을 하는 대구에서 올라와 관리하고 있다. 또 인근에 사는 친지가 매일 방문하여 종택을 보살펴주고 있다.

제일이 다가오면 제일 하루 전날, 종손과 종부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종택에 와서 안팎을 청소하고 사당도 정결히 한다. 제수는 종손과 종부 및 숙부가 대구에서 대체로 모두 마련하여 오며, 메나 갱·탕 등은 종택에서 마련한다.

제일에 원근에서 제관들이 도착하는데, 예전에는 제관이 100여 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줄어서 50~60여 명 정도가 참사하고 있다. 외빈도 예전

에는 청송의 함안조 씨 문중에서 참사하였으나 현재는 친지들만 참사하고 있다. 참사자 가운데 도포를 입은 노령의 제관은 15~20여 명이며, 그 외에 신병용 씨의 조카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사하러 온다고 한다. 이는 제



< 오봉종택 정침 전경 >

사 지내는 시간을 입제일 새벽에서 기일 저녁으로 바꾼 변화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

제관이 줄어서 현재 시도기는 작성하지 않으며, 참사자들의 면면을 보아가며 그날의 집사자를 정하고 있다. 초헌은 주인인 종손이 맡아서 하며, 아헌은 예서대로 주부가 맡아서 한다. 종헌은 외빈이 참사하였을 때는 외빈에게 맡기며, 외빈이 참사하지 않았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한다. 그리고 홀기를 읽는 집례는 예에 밝은 연장자를 뽑아 맡아하게 하고, 술잔을 올리거나 내리는 집사는 젊은 층에서 맡는다.

## (2) 제청 마련

제수를 모두 마련하고 제관이 도착하여 집사분정이 끝나면, 제청을 마련한다. 제청은 정침의 대청이다. 예전에는 저녁 12시가 지나서 제청을 마련하여 1시쯤에 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8시 정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관도 줄고, 또 제사를 모신 다음날 모두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시 반쯤 먼저 정침의 북쪽에 병풍을 편다. 병풍은 12쪽으로 여기에는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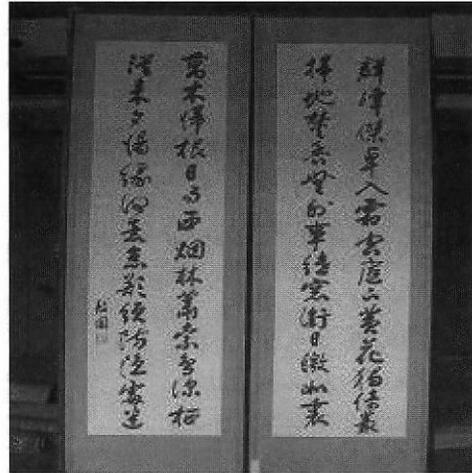
「퇴계선생 사시음 십절(退溪先生 四時吟 十絶)」이 쓰여 있는데, 대구의 이수락이 쓴 것이라고 한다. 병풍의 앞에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제상을 놓는다. 고위와 비위의 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을 두 개 준비하여 각각 진설하여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하나의 제상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사당에 도둑이 들어 제구들을 훔쳐갔고, 또 함께 쓰는 제수도 있고, 제관도 줄었으며, 제수도 예전 보다는 간략하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상 위에는 축대를 놓고, 제상의 앞에는 향안을 놓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둔다. 향안의 왼쪽에는 축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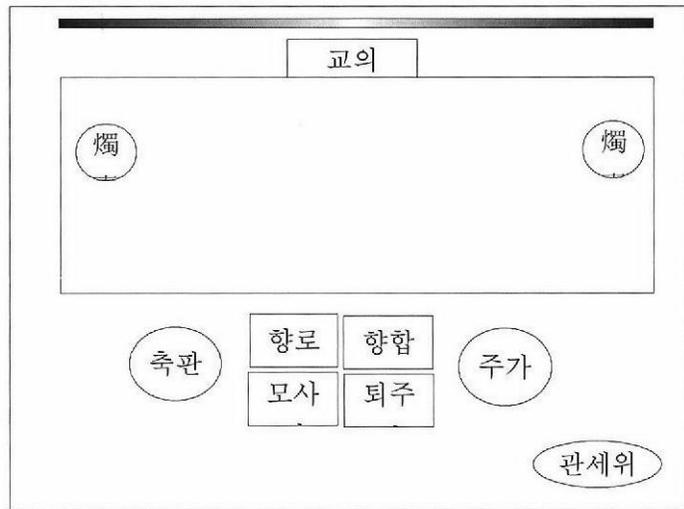
두어서 축문을 올려두고, 오른쪽에는 주가를 놓아 술병을 둔다. 향안 앞에 모사기와 퇴주기를 두고, 관세위는 제청의 오른쪽에 마련하여 둔다.

#### (3) 진설

제상이 마련되면 창홀에 따라 8시 정도에 진설을 시작한다. 고위와 비



<오봉종택 제례용 병풍>



< 오봉종택 제청 배치도 >

위의 제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메와 갱·떡·면 등을 쌍으로 준비하며, 과일이나 전·채 등은 같이 사용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과일과 주찬만을 진설하고, 출주한 뒤에 반갱과 탕적을 올리기도 하는데, 오봉종택에서는 반갱을 비롯한 모든 제수를 진설한 뒤에 출주하고 있다. 홀기는 다음과 같다.

- 主人以下序立：주인 이하는 차례대로 서시오.
- 執事俱詣位：집사자는 관세도구를 갖추어 자리에 나아가시오.
- 盥洗：손을 씻으시오.
- 執事設蔬果酒饌盤盞匙楪米麵食飯羹湯炙：집사자는 소과와 주찬과 반잔과 시접과 미면식과 반갱과 탕적을 진설하시오.

제관들이 제청에 도열해 서면 집례가 집사자를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그리고 준비해둔 제수를 제상에 올린다. 먼저 과일을 올리는데, 서쪽에서부터 조율이시의 순서로 올리고 시절과를 그 다음에 진설한다. 이어서 전과 나물, 포와 해를 올린다. 다음에 반잔과 시접을 놓고, 면과 떡, 반과 갱을 올리면 진설은 마무리된다.

#### (4) 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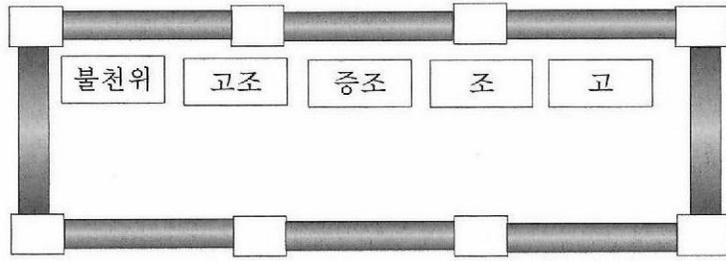
진설이 완료되면, 종손은 집사자 4~5명과 출주를 위해 사당으로 나아간다. 홀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主人升詣于廟宇：주인은 올라 묘우에 나아가시오.
- 出主設位于廳事：출주하여 신위를 청사에 안치하시오.
- 祝開楨：축관은 주독을 여시오.

창홀에 따라 주인의 길을 밝히는 봉축집사가 앞장서고, 그 뒤를 주인이 따르며, 출주고사를 아뢴 축관, 그리고 주인을 도와줄 집사자 두세 명이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주인의 뒤를 따른다. 사당에 신주는 가장 서쪽에 원위를 모시고, 그 다음에 고조고비위 · 증조고비위 · 조고비위 · 고비위를



< 불천위 사당 신위 배열도 >

모신 형태이다. 따로 감실을 두지는 않고 교의에 주독을 안치하고, 주독 안에 신주를 봉안하였다. 교의의 앞에 제상이 있으며, 그 앞에 향로가 마련되어 있다.

사당에 들어온 주인은 꿇어앉아 기일을 맞이하여 신주를 제청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의 출주고사를 아뢰다. 오봉종택의 출주고사는 다음과 같다.

今以 孝十五代孫 泳均  
 顯先祖考 贈嘉善大夫吏曹參判 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府君  
 顯先祖妣 貞夫人 咸安趙氏 遠諱之辰 敢請  
 神主 出就正寢 恭伸追慕

오늘 15대손 영균은 현조고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행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부군과 현선조비 정부인 함안조씨의 기일에 감히 청컨대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 삼가 추모하는 마음을 펴고자 합니다.

고위와 비위의 기일이 같기 때문에 함께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 제사를 모시겠다는 내용이다. 신지제의 신주에는 “顯先祖考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使世子左副賓客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府君神主”라고 중서되



< 불천위 사당 전경 >

어 있으며, 비위에는 “顯先祖妣 貞夫人 咸安趙氏 神主”라고 종서되어 있다. 그런데 출주고사문에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기재한 것이 오봉종택 출주고사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주고사를 아뢰 뒤엔 주인은 신주를 봉안하여 제정으로 모시고 와서 교의에 안치한다. 창홀에 따라 주독을 열고, 도자를 벗기면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된다.

#### (5) 강신례와 참신례

참신례와 강신례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대체로 참신례를 먼저 하고 이어서 강신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봉종택에서는 강신례를 먼저 하고 이어서 참신례를 행한다. 홀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行降神禮

- 主人立於香案之前 : 주인은 향안 앞에 서시오.
- 跪 : 꿇어앉으시오.
- 執事者奉香 : 집사자는 향을 받드시오.
- 主人三上香 : 주인은 세 번 향을 태우시오.
- 俯伏興少退再拜 : 구부려 엎드리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십시오.
- 主人詣位跪 : 주인은 신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以酌授主人 : 술잔을 주인에게 주시오.
- 主人受酌祭之茅上 : 주인은 잔을 받아서 모사 위에 제주하시오.
- 執事受虛酌反于故處 : 집사자는 빈 잔을 받아서 제자리에 돌리시오.
- 主人俯伏興少退再拜 : 주인은 구부려 엎드리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십시오.
- 參神 主人以下皆再拜 : 참신, 주인 이하는 모두 두 번 절하십시오.

오봉종택의 강신례는 분향 · 분향재배 · 뇌주 · 강신재배의 순서에 따라 강신례를 행한다. 주인이 향안 앞에 나아가 섰다가 꿇어앉는다. 그러면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좌집사가 같이 꿇어앉아 주인에게 향을 건넨다. 주인은 이것을 받아 향로에 향을 피우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주인은 다시 향안 앞으로 나아와 꿇어앉는다. 그러면 집사자가 제상에서 잔을 내려 직접 술을 따라 주인에게 건넨다. 주인은 이 잔을 받아 모사 위에 세 번 나누어 붓고는 빈 잔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이 잔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뇌주의 예가 끝나면 주인은 다시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이렇게 강신의 예를 마치면, 참사자 전원이 신에게 두 번 절하여 참신의 예를 행한다.

#### (6) 초헌례

제수의 진설이 끝나면 신에게 술을 권하는 초헌의 예가 이어진다. 초헌례는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대체로 헌작(獻爵)·제주(祭酒)·진적(進炙)·독축(讀祝)·재배(再拜)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봉종택에서는 진적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초헌은 주인인 종손이 맡아서 하며 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主人詣位東向立盥洗 : 주인은 자리에 나와 동쪽을 향하여 서서 손을 씻으시오.
- 主人神位前跪 : 주인은 신위의 앞에 꿇어앉으시오.
- 執事先取考位前盤盞以授主人 : 집사자는 먼저 고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주인에게 주시오.
- 主人受執盞 : 주인은 반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主人祭之茅上以授執事 : 주인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반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次取妣位前盤盞以授主人 : 다음으로 비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주인에게 주시오.

- 主人受執盞 : 주인은 받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主人祭之茅上以授執事 : 주인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祝東向跪 : 축관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主人之左讀祝 : 주인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으시오.
- 主人俯伏興少退再拜 : 주인은 구부려 엎드리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시오.
- 主人復位 : 주인은 자리로 돌아가시오.
- 執事取兩位前盤盞退酒 : 집사자는 두 신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술을 물리시오.

메와 갯을 포함한 제수를 모두 진설한 뒤에 출주하였기 때문에 강신례와 참신례 다음에 진찬의 절차는 없다. 참신을 마치면 바로 초헌의 절차가 이어진다.

주인인 헌관이 손을 씻고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그러면 좌집사가 고위 앞에 놓인 반잔을 잡아서 주인에게 건넨다. 주인이 왼손에는 잔반을 쥐고 오른손으로 잔을 쥐고 기다리면, 우집사가 술잔에 술을 따른다. 주인은 잔을 받아 신주 앞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모사기 위에 제주한다. 그리고 그 반잔을 좌집사에게 건네면, 좌집사가 본래의 자리에 돌리는 것이다.

오봉종택의 불천위 제사는 고위와 비위의 제일이 같기 때문에 홀기에는 비위의 잔을 올리는 방법도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잔을 올리며, 잔을 올린 뒤에 가적(加炙)하거나 진적(進炙)하지 않는다.

주인의 헌작과 제주가 끝나면, 축관이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오봉종택의 축문식은 다음과 같다.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維歲次某干支正月某朔八日干支 孝十五代孫 泳均 敢昭告于  
顯先祖考 贈嘉善大夫吏曹參判 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使世子  
左副賓客 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  
府君  
顯先祖妣 貞夫人 咸安趙氏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清酌庶羞 恭伸奠獻 尚  
饗

유세차 모간지 정월 모삭 8일에 효 대손 영균은 감히 현선조고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 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부빈객 행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지제교 겸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부군과 현선조비 정부인 함안 조씨께 밝게 아뢰니다. 해가 바뀌어서 기일이 다시 돌아옴에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워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경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축관이 축문을 읽는 동안 참사자들은 모두 부복하며, 축관이 축문 읽기를 마치면 주인은 신위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어서 집사자들이 고위와 비위의 반잔에서 잔을 내려 퇴주기에 물리고 제자리에 놓는다. 이로써 초헌의 예가 마무리된다.

#### (7) 아헌례와 종헌례

아헌은 두 번째로 술을 올리는 과정이다. 예서에 따라서 오봉종택에서는 주부가 아헌을 맡아서 술을 올린다. 안제관들은 이때 안방에서 대기하며, 제청에 나아오지 않고 오직 종부만 제례에 참여한다. 다만 신행 온신부는 제사를 마치고 사신례를 마친 뒤에 제상으로 나와 조상을 뵈는 절을 한다고 한다.

아헌은 축문을 읽는 과정을 제외하고 초헌과 동일하다. 홀기상의 과정

은 다음과 같다.

○ 행아헌례

- 亞獻詣位東向立盥洗 : 아헌관은 자리에 나아와 동쪽을 향하여 서서 손을 씻으시오.
- 亞獻神位前跪 : 아헌관은 신위의 앞에 꿇어앉으시오.
- 執事先取考位前盤盞以授아헌 : 집사자는 먼저 고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受執盞 : 아헌관은 받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亞獻祭之茅上以授執事 : 아헌관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잔반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次取妣位前盤盞以授亞獻 : 다음으로 비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受執盞 : 아헌관은 받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祭之茅上以授執事 : 아헌관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亞獻俯伏興少退再拜 : 아헌관은 구부려 엎드리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시오.
- 亞獻復位 : 아헌관은 자리로 돌아가시오.
- 執事取兩位前盤盞退酒 : 집사자는 두 신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술을 물리시오.

○ 행종헌례

- 終獻詣位東向立盥洗 : 종헌관은 자리에 나아와 동쪽을 향하여 서서 손을 씻으시오.
- 終獻神位前跪 : 종헌관은 신위의 앞에 꿇어앉으시오.
- 執事先取考位前盤盞以授終獻 : 집사자는 먼저 고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종헌관에게 주시오.

- 終獻受執盞 : 종헌관은 받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終獻祭之茅上以授執事 : 종헌관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잔반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次取妣位前盤盞以授終獻 : 다음으로 비위 앞의 반잔을 취하여 종헌관에게 주시오.
- 終獻受執盞 : 종헌관은 받아서 잔을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祭之茅上以授執事 : 종헌관은 모사 위에 제주하고, 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본래의 자리에 놓으시오.
- 終獻俯伏興少退再拜 : 종헌관은 구부려 엎드리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시오.
- 終獻復位 : 종헌관은 자리로 돌아가시오.

아헌관이 손을 씻고 향안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반잔을 내려 아헌관에게 준다. 여기에 우집사가 술을 따르고, 헌관은 제주한 다음 좌집사에게 건넨다. 좌집사는 그것을 본래의 자리에 놓는다. 비위의 잔도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 진적이나 가적하지 않고 헌관은 신에게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부가 헌작하였기 때문에 네 번 절한다. 이어 집사자가 신위 앞의 술을 물린다.

종헌관은 그날 외빈이 참사하였다면, 외빈을 위주로 종헌관을 맡기며, 외빈이 없을 경우에는 문중의 연장자가 번갈아가면서 맡아한다고 한다. 종헌례는 마지막으로 술을 올리는 행사이다. 헌작의 방법은 아헌과 동일하며, 종헌관이 헌작하고 재배한 후, 다음의 유식을 위해 집사자는 철주하지 않는다.

(8) 유식례

유식례는 신에게 음식을 드시도록 권하는 절차이다. 보통은 침작과 삼시정저로 이루어진다. 합문례와 계문례는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절차로 보기도 하는데, 홀기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연속하는 절차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합문과 계문까지를 함께 유식례에 넣어 그 과정을 기술하기로 한다. 홀기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主人立於香案前 : 주인은 향안 앞에 서시오.
- 執事者啓飯蓋 : 집사자는 메 뚜껑을 여시오.
- 插匙 西柄正箸 : 숟가락을 꽂고,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젓가락을 바로 놓으시오.
- 執事者添酌于兩位盞 : 집사자는 두 분 신위의 잔에 술을 더하시오.
- 主人以下俯伏 : 주인 이하는 부복하시오.
- 祝三噫歎 : 축관은 세 번 기침 소리를 내시오.
- 主人以下興 : 주인 이하는 일어나시오.
- 進茶 : 승냥을 올리시오.
- 點茶 : 승냥에 밥을 마시오.
- 鞠躬 : 국궁하시오.
- 平身 : 평신하시오.
- 執事者兩位前下匙箸 : 집사자는 두 분 신위의 수저를 내리시오.
- 闔飯蓋 : 메 뚜껑을 덮으시오.
- 祝立於主人之左 : 축관은 주인의 왼쪽에 서시오.
- 東向立告利成 : 동쪽으로 향하여 이성을 고하시오.

먼저 주인이 향안 앞으로 나아가 선다. 그러면 좌우의 집사자가 각각 고위와 비위의 메 뚜껑을 열어서 식사를 준비한다. 다시 숟가락을 앞쪽이 동쪽으로 가도록 꽂고, 젓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여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좌우의 집사자들이 각각 메 뚜껑에 술을 받아 신위 앞의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잔에 술을 더한다.

합문은 신이 편안히 식사하도록 방문을 닫고 제관이 물러나는 것이며, 계문은 식사를 다 마쳤으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제청이 방일 경우에는 문을 닫고 나오며, 대청일 경우에는 병풍으로 가리거나 병풍 좌우의 끝을 접는 형식을 취한다.

오봉종택에서는 병풍으로 가리지도 않고, 병풍으로 끝을 좌우로 접지도 않는다. 즉 합문과 계문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침작 이후 주인 이하 참사자 전원이 부복하여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축관이 세 번 기침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음을 고한다.

신이 식사를 마쳤으면, 이어서 차를 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냥을 올린다. 오봉종택에서는 국그릇을 내리고 맑은 물을 올린 다음, 여기에 밥을 만든다. 승냥을 드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잠시 국궁하여 대기한 다음, 수저를 내리고 매 뚜껑을 덮는다. 이로써 신은 식사를 완전히 마친 것이다.

공식적인 제례의 끝을 알리는 행위를 ‘고이성(告利成)’이라고 한다. 보통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서향하여 서면, 축관이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제례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로 “이성”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오봉종택에서는 축관이 동향하여 이성을 고한다.

#### (9) 사신

제사를 마치고 조상을 떠나보내는 예식이 사신례이다. 흘기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主人以下皆再拜 : 주인 이하는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執事以盤盞退酒 : 집사자는 반찬의 술을 물리시오.
- 祝舍楨 焚祝 : 축관은 주독을 닫고, 축문을 태우시오.
- 主人奉神主廟宇還安 : 주인은 신주를 봉안하여 묘우에 다시 안치하시오.
- 執事撤饌禮畢 : 집사자는 제수를 거두고, 예를 마치시오.

‘이성’을 고한 다음, 참사자 전원은 신주를 향하여 두 번 절하여 사신의 예를 마친다. 이때 좌우의 집사자 두 사람은 같이 절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참사자들이 절을 마치면 제상에서 잔반을 내려 술을 퇴주기에 붓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다음에 사신 재배를 한다. 축관은 신주에 도자를 씌우고 주독을 닫는다. 이어서 주인이 주독을 봉안하고 다시 사당으로 들어가 교의에 안치하고 사당을 나온다. 그러면 집사자들은 제수를 물려서 음복을 준비하고, 제관들이 모두 모여 제물을 음복하는 것으로 제사는 마무리 된다.

#### 4. 종손 · 종부 이야기

의성의 오봉종택은 신지제(1562~1624)를 불천위로 모신다. 15대 종손 신영균은 “불천위는 관직이 동부승지로서 시대적 ·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라고 했다. 그는 불천위의 구국정신, 정의구현, 교육정신 등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손 신영균(55년생)과 종부 최영옥(59년생)은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모두 교육자 출신이다. 종손은 대학에 재직했으며 종부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8년 6개월 간 했다. 종손과 종부는 부모세대의 희생적 삶을 생각하며 어른들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 있었다.

##### 1) 종손 신영균 이야기

신영균은 3남 3녀 중 셋째이다. 교육자이셨던 아버지는 1998년에 작고 하셨다. 6남매의 장남인 아버지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자식들을 키우셨다. 아버지와 동갑인 어머니는 영양남씨로 의성군 점곡면 윤이실에서 18세에 시집오셨다. 어머니의 친절은 재력이 있어 시집 올 그 당시에 하인도 데리고 오셨다. 어머니가 가난한 종가로 시집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오게 된 사연을 며느리 최영옥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정말 양반집 영양남씨거든요. 윤이실이라고 아세요? 사곡 그도 좀 큰 데, …… 영양남씨도 이 아주신가보다 더 크거든요. (어머님도 증가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이게네 그런 데 시집보내는게 큰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그리이 인제 어머님 할아버지가 이 불천위제사 때 오셨는거야. 옛날에는 같은 그거 아니라도 다니셨잖아, 이래 와가 이래 보이 아버님을 보시고 ‘아 괜찮다. 우리 사돈하자’ 그래가 뺏어가 본 것도 없고, 그리 뭐 가난한 집에 오셨지 어머님은, 그래도 어머님은 좀 있는 집이셨고 친정은 좀 있었고, 없는 집에 오셔가 그래 뭐 시동생 뒷바라지 아이들 키울라 그래 고생하셨지.

신영균의 아버지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셨다고 한다. 종녀 신정규(50년생)는 아버지는 형제들과 우애가 깊으셨고 자신에게도 자식들 잘 키우라며 항상 좋은 글을 주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학을 공부하셨다. 신정규가 들려주는 아버지 이야기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읽을 수 있다.

육남매의 맏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만 그래도 또 동생들 학교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지요. 그래 인자 그 밤에 인자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밤에 저 강에 요 멀잖아요, 저 강에 소 풀을 베러 갔는데 개가 이렇게 나타나 자꾸 달라 다니드래. 그래가 후처가면서 낮으로 후처가면서 이렇게 풀을 베가 인자 집에 들오는데, 요 와 동네 입구에 그 뭐고 집 있잖아요, 고계 오이게네 없어졌부더래. 그래 사뭇 뒤에 따라오고 이러더니 없어져버리더래. 그래 가마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늑대더랍니다. 알았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인자 달빛이 왜 흰한 밤 있잖아요, 어스름 달빛 와 그런 보름이래나노이끼네 날 다 샐는줄 알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집에 와가 보니까 새벽인거라, 그게 늑대야 옛날에 여기 늑대가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40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지역 사회

활동에도 애쓰셨다. 특히 아버지는 의성지역 향토문화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교직을 약 한 40년 정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께서 여기 고향에 계셨기 때문에 객지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고, 또 교직생활하시면서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계셨는데도,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시다보니까, 지역 쪽에서는 덕망을 얻으셨지만 실질적인 외부 객지생활에서는 큰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유당 시절에 하다못해 누구누구를 갈다가 지지만 해준다 해도, 교감으로 발령 내줄게 교장으로 발령 내줄게, 고 다음에 지역 인근에 면장 자리 하나 줄게 이케도, 그 신익희 선생님을 계속 존경하시고 이러다보니까, 또 사실 같은 신씨란 입장에서 그 분을 갈다 지지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피해도 보시고 사회활동도 힘드셨는데,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교직생활 40년을 무사히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오신 후에 지역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의성문화원에 향토사 연구소 소장을 맡으시면서 줄곧 그 의성지역에 있는 향토문화 개발, 특히 그 의성지역 봉화가 열일곱 군데가 그 산재해 있는데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그 위치 비석을 마지막에 두 군데는 못 세우고 돌아가셨어요. 특히 선고께서는 글씨도 잘 쓰셨는데 국전에도 심사위원도 하시다 보니까, 의성·안동·영주 지역에 대표적인 서원 같은데 행사 같은 데 참석하시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거기 비해서 저로서는 마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손 신영균은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른들의 제재도 많았다. 그는 그런 통제를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유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대체적으로 종갓집이 그 성격이 좀 보드랍습니다. 뭐 어른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조그마한 것도 통제를 벗어나면 못하게 짚았기 때문에, 뭐 어느 집 없이 아마 종갓집 하게 되면은 중손은 기가 약하고 좀 부드럽고, 그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 좀 많습니다. …… 맏이는 무조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카는 것만 우리는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친구들과 간에도 같이 싸움하다 보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싸움 많이 했지마는 맨날 하면 맨날 지는 거죠. 그러이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그 저 앞에 그 도로가 있지마는 도로까지 나가 보지를 못했어요. 도로 나가면은 차에 치기 죽는다. 개울에 목욕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 뒤에 못이 있는데, 요 뒤쪽만 조금만 나가면은 요개 앉아 계시던 노인분들이 쫓아와가지고, ‘니 어디 가노’ 카고, 마 꼬재이 들고 와서 마 뚜드리 가면서 쫓아 내랏거든요. 이 러다보니까 어릴 때 참 목욕 한 번 올케 못했고, 친구들 놀러 올케 못가고, 밤에만 되면은 노인들이 여 앞에서 쪽 계시다보니까, 늘 고만 바깥출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외부 통제가 자꾸 인제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신영균은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도 종손이기에 어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며 살았다.

나는 사실 농사짓기 싫어서 그 학부를 전자공학과로 갔고, 어여든지 객지 생활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런 상태인데, 막상 종손이라는 굴레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인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니는 그래도 국문학과 정도는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국사과라도 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 결혼 후에도 자녀문제, 고 다음에 직장생활하면서도 ‘항상 고향을 좀 잊지 말아라’ 카는 주위 어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도 사실 공부도 좀더 하고 싶었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도, 특히 자녀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그런 경우가 많이 아쉽다고 봐야죠. 대학 재직 중에도 국비로써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걸 다 포기 다 했으니까...

신영균도 종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당시 신영균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최영옥의 고모가 중매를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중

손에게 들어보자.

선은 아마 한 칠십여 회 정도 봤는 거 같고, 그 전에 그 집에 어머니가 ‘아이고 됐다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집사람의 고모가 같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한번 보라고 해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인자 모르겠고 어쨌든 만나보이 사람 좋고 내 얘기 잘 들어줄 거 같고, 마 이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무조건 결혼하자고 이야기한 상태고, 아마 그 당시에는 순진해서 그런지 내가 결혼하자카이 그냥 따라 왔는 거 같고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저기 저 선보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영균은 29세에 결혼을 한다. 그는 종손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여겨야 했다. 신영균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만에 딸을 얻는다. 귀한 딸을 얻기까지 부부는 마음고생도 심했다.

인제 결혼 이후에는 특히 자녀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 ‘아이구 이놈에 종손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집사람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특히 그 자녀문제 이런 거 때문에, 개인모임이라든지 우리 가족 모임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 집에 무슨 그 행사 있다든지, 명절이 되면은 그 애들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장자 장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다보니까,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우리 가족들 모임에서도 그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 어머님께서는 마 기가 팍 죽고 이런 상태고, 아마 집사람도 겹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아마 속으로 울었는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신영균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 딸은 종가를 좋아하고 종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다. 그는 어린 딸을 재울 때 조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신영균은 딸도 종가를 지킬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Ⅲ. 경북 증가문화 조사현황

우리 사회 구조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남녀 구별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상속문제 이것도 남녀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뭐 국가 통치하는 분들도, 남자들이 하는 관행에서 여자들이 하시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남자도 종가를 지켜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여자도 종가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 합니다. 고건 아마 사회상으로 조금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직은 우리 시기에서 논하기가 어렵겠나 싶습니다……근데 우리 딸애는 이 집을 갖다가 지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흐흐흐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시는지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뭐 애가 자네 안 자네, 뭐 15대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 14대 할아버지 이카면서 그거를 한 구절 노래로 불러 가면서, 이제 그 잠을 청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애가 보통 어릴 때 잠이 안 오면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인제 한 서너 바퀴 굴러가면, 지절로 잠을 자는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애도 아직 어리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신영균은 봉제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제상은 간소하게 차리더라도 일가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아랫대들이 6촌만 돼도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기 힘든 상황이 아쉽기도 하다.

저도 인제 안동 도산서원이나 또 소수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 봤을 때 상당히 검소하게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상은 좀 적게 좀 차리고, 먹는 거는 좀 푸짐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상은 보면은 도산서원 같은 데도 딱딱 간략하게 요렇게, 그 퇴계선생이 정했는 고런 몇 가지 고거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은 자기 먹는 것도 좀 가지고도 오고, 그 다음에 인제 나눠 먹을 수 있는 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푸짐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근데 제사는 아마 다음 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에는 제사가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제 준비하는 그 집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힘들지만, 한 번씩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또 좋고, 저도 우리 할머니 아랫대가 지금 사십 일곱 명이거든요. 사십 일곱 명인데 저

도 지금 육촌 되나, 가들이 육촌 이런 경우에는 이름도 지금 잘 몰라요. 또 뭐 하다 못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객지로 나가고 이러면은 가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제사지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또한 신영균은 고택의 관리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생활 기반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또 고향 마을에서 자신이 처신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신영균이 종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특히 집 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 초창기에는 참 갈등이 많았지요. 이때까지 선고께서 지키던 집인데 ‘내가 들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도 했었지만, 근데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내 개인의 활동이 시골이 아니잖아요, …… 사실 고향에 와서 언행하나 말 하나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 들오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은 그 주변 여건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고…

신영균은 종택이 일반문화재이기 때문에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유교문화권에 들어간 의성의 산운·사촌의 경우에는 고택관리가 용이하지만, 의성군의 재정에 완전히 의존하는 오봉종택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근데 의성지역에서 지금 그 구분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일반 문화재가 돼 있고 하나는 유교문화권으로 돼 있는데, 산운이나 사촌에는 유교문화권으로 해서 지금 그 각 마을에 대한 보수라든지 고택에 대한 그 수리가 되는데, 일반 문화재인 경우에 그 의성군 내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도 지원금을 받더라도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돼요. 그러이 그 경비가 우리 군 세수 받아가지고 이쪽에 투자할 돈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람이 있다면은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가지고, 군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 하에서 좀 수리가 됐으면 좋겠나 싶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부서지면은 돈은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부서지기 전에 좀 보수를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전통 그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현대식으로 쓸 수가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효율적인 종택 관리를 위해 “고택관리를 위한 인원 배정, 문화재·불천위 사당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화재대비를 위한 소방시설, 긴급상황시 연락체계 구성” 등을 제안한다. 신영균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고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봉종택을 잘 보존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5~6년 후 고향으로 돌아와 종택을 가꾸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종손 신영균의 바람이다.

#### 2) 종부 최영옥 이야기

종부 최영옥은 경주최씨로 의성 다인이 고향이다. 최영옥은 초등학교 교사로 28년 6개월 간 근무했다. 작년 8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 최영옥의 친정아버지도 교육자였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최영옥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배웠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기 귀했잖아요, 조기 그거를 동가리 동동 내가지고 소금 단지에 너놓잖아요, 너 놓고 한 동가리 딱 내 갖고 인제 밥 위에 찌잖아요, 찌선 인제 고것만 드리는거라, 할아버지 상에만 올리는거라, 또 밥을 해도 옛날에 순 보리밥에 가운데만 쌀 탁 해가, 고 밥 탁 떠가 할아버지 드리고, 우리는 막 섞어가 보리밥 먹자나, 그러면 우리는 전부 그 가가 앞애가 앉잖는거라, 조기 한 점 얻어 먹을라고. 그렇게 하여튼 본인은 안 먹고 그랬죠 뭐.

친정아버지의 월급으로 조부모를 봉양하고 2남 2녀를 키우느라 친정어머니도 고생이 많으셨다. 최영옥은 맏딸로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교대를 지원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최영옥은 결혼할 사람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최영옥은 스물다섯 살에 고모의 주선으로 종손과 선을 본다. 그 당시 신영균이 학교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선보는 것을 꺼렸다고 했다. 최영옥에게 종손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최영옥은 종가를 시골의 큰집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집에 시집 갈 때도 종가를 크게 안 봤는 거야. 우리 집이 맨 큰집이니까, 제가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설날에 이런 가마솥에 밥을 한 밥솥을 했는 거야. 그래가꼬 오는 사람 밥을 다 먹였거든요. 뭐 그 정도로 생각했지, 종가 종부 이런 개념 없이 저는 시집을 갔고 친정엄마가 말렸어요. …… 그래가꼬 이 종가라는 걸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친정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 정도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종가도 아이고, 완전 그냥 촌에 큰집 정도밖에 안 되는 고런 집인데,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저는, 그러이 인제 시집 갈 때 아무 것도 모르고 간 거지. 그래가꼬 학교 계시니까 학교는 무조건 안 본다. …… 그때는 인자 학교 있다 카는 그기 인자 첫째 싫으니까 나는 안 본다, 그런 거지, 뭐 종손이라서 안 본다가 아이고, 이랬는데 그래 보고 그기 인연이 돼가 보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최영옥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종부로서 봉제사의 소임을 충실히 했다. 제사 준비 때는 대구에 사는 셋째 동서가 최영옥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학교 출·퇴근 시간에 맞추며 기제사를 준비하느라 잠도 부족했지만 셋째 동서가 도와줘서 조금은 수월했다고 한다.

대구서 지낼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날 장을 봐서 부침은 동서가 합니다. 부침이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라고 부침 빼고 저는 인제 나물 볶고, 인제 조기 향어 소고기 과일 떡 요거는 제가 하거든요. 제가 장을 보고 동서는 인제 찌집 거리만, 인제 장봐서 찌집 꾸갔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 봐 놓고는 새벽에 꾸요, 향어랑 소고기랑 이런 거 꾸 놓고 나물도 할 수 있으면 해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놓고 고래 해놓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라고 학교 상황이 퇴근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에 퇴근해갔고 집에 와서, 그러면은 어머니는 인제 콩나물 같은 거는 다듬어 노시지. 다른 것들은 인제 그래 갖고 와서 다른 거 인제 나물 얹치고, 저희들은 콩나물국 끓이고 탕국 끓이거든요, 그러면 탕국 얹치고 밥 얹치고 그라고 빠진 거는 달걀을 삶는다든지 국수를 삶는다든지, 이런 거는 갔다 와서 해가 그래 합니다. (학교 나가시고 제사 준비하시고 참 쉽지 않으실건데요?) 예 그렇지, 그렇다고 누구 하나 손 벌릴 데가 없거든요. 그나마 동서가 셋째거든요. 셋째가 그나마 꾸주니까 숨을 쉬지, 찌짐까지 내가 한다면은 꼬박 새야 되는 거지 인제...

그나마 대구에서 지내는 기제사는 나은 편이다. 불천위 제사 때는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대구에 오면 새벽 4시가 넘기 때문에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했다. 그래도 자신은 동서들이 도와줘서 나은 편이라고 했다. 시어머니 세대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옥은 시어머니가 종가로 시집와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영옥도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희생적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못 사는 집에 오셨잖아. 단지 그 양반집이라 카는 그 하나만 보고 오셔가, 오시니까 막내 시동생이 다섯 살인가 그렇더라요. 그러이 시동생이랑 큰 시누랑 같거든요. 같이 키웠는거야. 그래 없는 살림에 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이 아버님이 이 동생들을 교육 다 시키고 이랬으니까, 그래 아버님도 쉽게 말하면, 연수를 가갔고 교감 자격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 못 받으셨는 거야. 그냥 평교사로 계셨는 거야 계속, 인제 벽지로도 갔다 오면 승진이 되는데 고 집 주위에만 돌았는 거야. 그 인제 시골집 주변에 봉양초등학교 고 우에 문흥, 하여튼 집에서 갈 수 있는 곳만 다니신 거야. 인제 자식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만큼 가난했는데요 그 집이, 옛날에 좀 있었던 거 다 팔았데요. 그래 그 가난했는 거를 인제 자식 공부 시키고 동생 시키고 그라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이 어머니도 안 해본 농사가 없데요. 과수원도 해봤고 벼농사도 옛날에 통일벼 이래가 상 줬는 거도 있어요. 잘 지었는 사람 그 상도 받아 갖고, 그때 상금 받아 갖고

지금 대문하셨다 카더라고 시골에 대문을...

중부 최영옥은 시아버지를 추억하며 정이 많으시고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고 했다. 특히 시아버지가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서 오셨던 일을 기억한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만에 귀한 자식을 얻었다고 시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다.

애 가졌다고 아주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 갖고 오셨어. 그날 내가 병원을 간다고 집을 비웠어. 지금은 그 아파트 재개발해가지고 뜯었는데, 좀 이래 언덕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아파트가 수성 동아아파트라고 수성못 있는 덴데, 그 무거운 수박을 끄끙 안고 올라오셨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앞집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다시 안고 수박 샀던 과일 가게에 그걸 맡기놓고 가셨더라고 고게 좀, 며느리 애 가졌는데 한 매겨볼라고 오셨는데 고런 게 좀 그렇고...

최영옥은 중부로서 자녀문제로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내색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조상 중에도 서른아홉에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다’고 최영옥을 위로해주셨다. 최영옥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지만 15년의 세월을 지내 오면서 마음을 비웠다고 했다.

최영옥은 시집와서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친정어머니도 참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참으면 집안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안일은 일가 어른들의 뜻을 존중하며 따랐다. 하지만 중부로서 그런 점이 힘들 때도 있었다.

아버님 회갑도 우리 시골에서 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 정말로 집기고 음식이고 전부다 사가지고 가서 시골에 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너거는 시골에서 해야 된다 그래 돌아가셨을 때도 시골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경대병원에 한 세 달 계셨나, 세 달 계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앰블란스 타고 시골 가서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가, 다행히 들어가서 가지고 사당 참배하시고 사랑에 들어가셔서 운명하셨거든요……윤오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음식은 얼마나 힘들어요, 괜히 상한 거 냐다가 큰 일 나. 그러이 그날그날 장봐가 그날그날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하며 하여튼 너거는 시골에서 해라, 그래가 그때도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대구오셨으니까 98년도 돌아가시고, 그때 시골에서 초하루 사망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 10년 전에도 별로 없었거든요. …… 그때 민성이 아빠도 수술했었거든요. 그러이 시골에 못 알린 거지 어머니 혼자 계시니, 수술해가지고 그러이 인제 소상날 가는데 실밥이 덜 풀은 상황에서 가가 했더니까…

그렇지만 최영옥도 종부로서 보람은 있다. 불천위 제사 때 아헌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종가문화에 서서히 물들어 갔다고 하는 종부 최영옥은 힘들 때는 시장에 간다고 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추스른다.

자기가 힘들 때, 아이구 내보다 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의 버팀목은 되지요. 저는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서문시장에 가요 대신동에,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막 팔라고 그카는 것들 보고 오면 거기서 힘을 얻고 오거든요. 저렇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카는게 호강이다 호호호 사치다 이런 제 마음을 먹고, 돌아올 때는 툭툭 털고, 갈 때는 마음도 그렇고 착착하게 나섰다가, 그래 시장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처럼 종부 최영옥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추스르는 법을 안다. 또한 최영옥은 집안 어른들의 뜻을 따르며 종부의 소임을 충실히 했다. 최영옥이 종가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움과 낮춤의 자세로 종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 5. 종가의 건축공간

### 1) 종가의 건축

아주신씨 오봉종택(梧峰宗宅)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의 종택으로 그의 사후(死後)에 건립되었다. 종택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기단 위에 지어진 낙선당(樂善堂)이 자리하고 있다. 낙선당은 1971년에 중건하였으며, 신지제의 아들 고송(孤松) 신흥망(申弘望)의 강학(講學) 공간이었다.

낙선당과 종택 사이의 경사진 언덕에 10여개의 돌계단을 오르면 오봉사당(梧峰祠堂)이 있다. 기단 위에 지어진 오봉사당에는 아주신씨 시조(始祖)인 신영미(申英美)와 입향조(入鄉祖)인 신지제 등 총 5분의 신위(神位)가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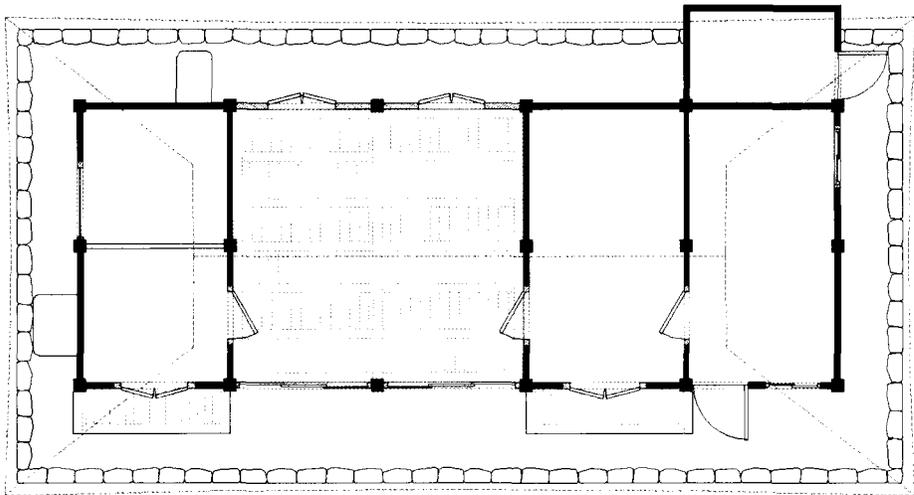
< 오봉종택 전경 >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1987년 5월 13에 오봉종택의 부속건물인 오봉사당만을 문화재자료 제 187호로 지정하여 보존하여 왔으나, 사당은 종택의 구성요소이므로, 문화재자료 제187호의 지정명칭을 “오봉사당”에서 2004년 3월 11일에 "오봉종택"으로 변경하고 지정내용을 “사당 1동”에서 “종택 일곽(6동)”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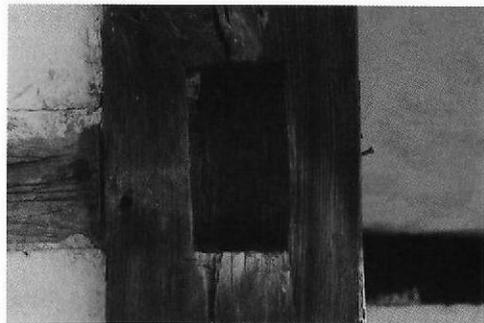
#### (1) 안채

오봉종택의 안채는 종택의 동쪽편에 자리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구조이다. 가운데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건넌방이 자리하고 있고 왼편으로 안방과 부엌이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의 부엌은 약 15년 전 보수한 것이다. 종택은 창건당시 90칸이 넘는 큰 규모였으나, 종손의 조부 때 지금의 규모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 안채 평면도 >

건물의 부재를 살펴보면 창건 당시에 사용했던 부재를 중수 때 그대로



< 안채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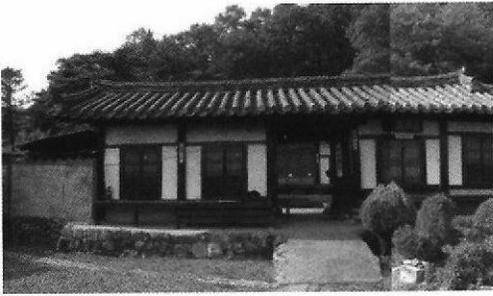
< 창건 당시의 부재 >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부엌 뒤쪽에 있는 보일러실은 종손이 종택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종손이 원격지인 대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 보일러실은 현재 샤워실로 변경되어 있고, 보일러 시설들은 철거 후 다시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 (2) 사랑채

오봉종택의 사랑채는 안채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ㄱ’자 평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 3량의 구조로 되어 있다.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은 맞배지붕이 올라가 있고 우측은 팔작지붕이 올라가 있는 것이 특이점이다. 이 사랑채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사랑에 대청이 없다는 것이다.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은 작은사랑 우측은 큰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고 큰 사랑방의 우측이 원래 대청이었으나 제례시 많은 제관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대청을 방으로 개조하고 뒤쪽에 온돌방 한 칸을 더 달아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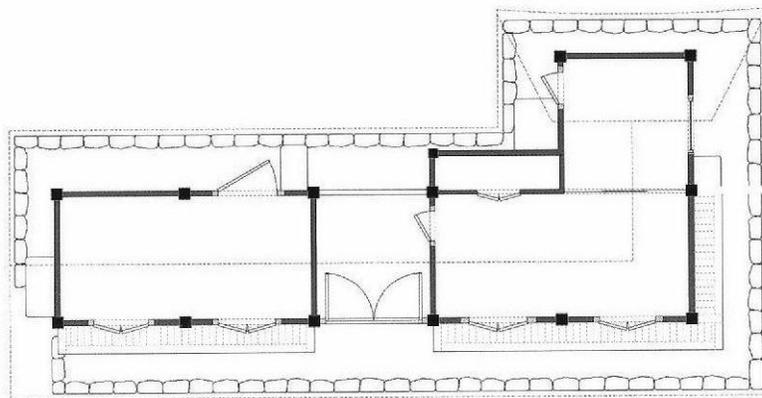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 사랑채 전경 >



< 큰사랑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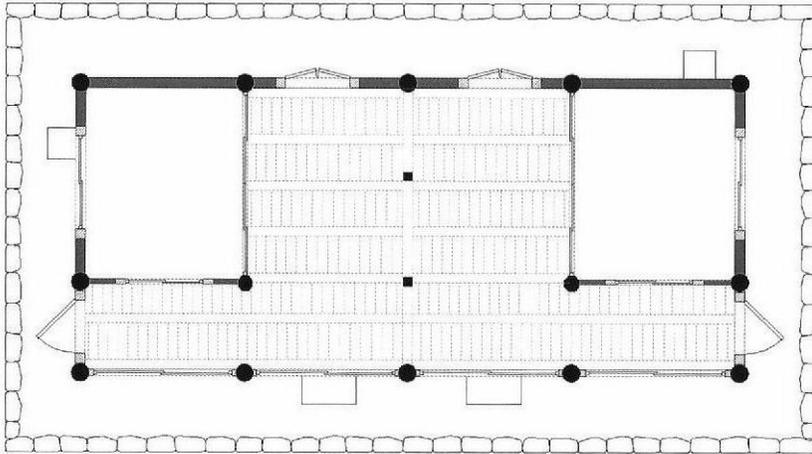


< 사랑채 평면도 >

#### (3) 낙선당

오봉종택의 낙선당은 안채의 서쪽에 위치한다. 이 낙선당은 1971년에 중건하였으며, 신지제(申之悌)의 아들 신흥망(申弘望)의 강학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평면은 ‘一’자형의 정면 4칸 측면 1.5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구조를 하고 있다. 현재 건물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동네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낙선당 대청의 중심에 있는 기둥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대들보의 보강재로 설치를 한 것인데, 정확한 설치 연대는 파악할 수 없다. 낙선당 서쪽에는 신도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신도비의 원래위치는 낙선당 남측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5년 전에

문중의 의견으로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다.



< 낙선당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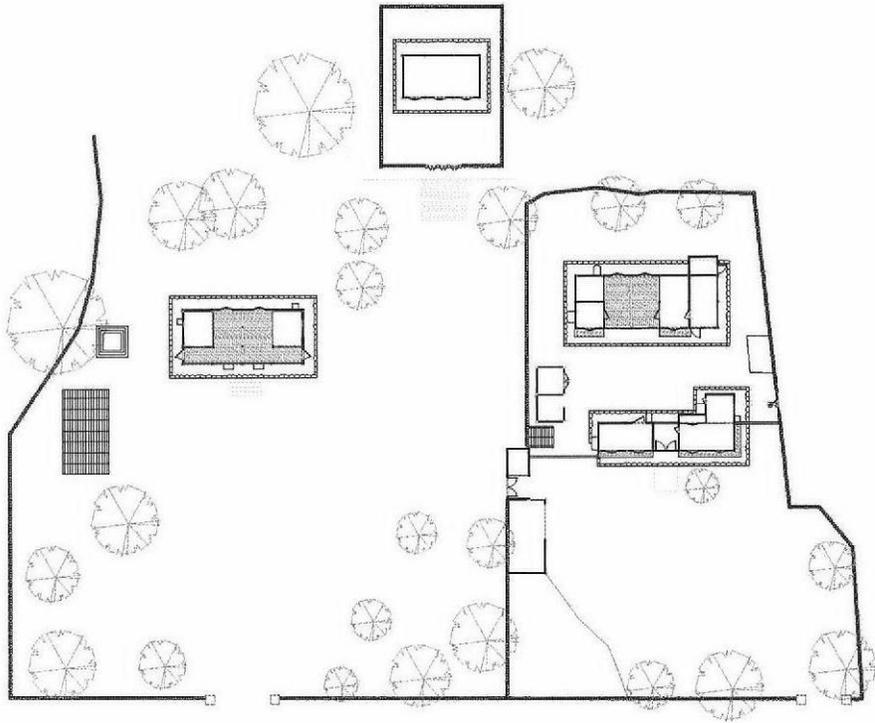


< 낙선당 전경 >



< 대청의 기둥 >

### Ⅲ. 경북 종가문화 조사현황



< 오봉종택 배치도 >